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54)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듯한



왜 이렇게 서론이 길었나

이제 서론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 강의의 그동안 <금강경>과는 상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 뿌듯하기도 하지만, 한편 귀한 지면을 내 멋대로 썼다는 미안함도 여저저 못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금강경>을 말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자 대중들께서는... 제 강의가 그동안 <금강경>과는 상

<금강경>은 한 마디 말로도 이미 넘치고, 또 팔만 장경으로도 다할 수 없습니다.

1) 대상: <금강경>이 설해지던 당시의 독

용쯤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금강경> 나아가, 불교가 가르치는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그 핵심 골격에 대해 제가 옛보고 들은

이제는 물론, 정통의 방식이 아닙니다. 다들 <금강경> 하면 소(疏)의 방식을 익숙히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특히 이 시대는, 소(疏)보다는 이(釋)인 별기(別記)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별기(別記)의 방식을 택했나

제가 이런 별기(別記)의 방식으로 <금강경>을 해설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불교의 장경이 어느 곳을 펼쳐도 불교의 소식을 알려주는 하나, 그들 각자가 표현하는 방식은 서로 너무나 다릅니다.

1) 대상: <금강경>이 설해지던 당시의 독

지는 기억하십시오,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상승의 불교를 설하고 있는 점에

2) 상황: 들에는 <금강경>의 '말씀'은 불교의 역사를 통해 습득된 어법과 문법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3) 언어: 셋째는 그 맥락과 상황을 이해하더라도, 그것을 해설하는 언어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로 소통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금강경>의 맥락과 상황은 여러 주석들이 이리저리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 발전된 수많은 주석들이 바로 그 잠긴 정신을 드러내주기 위한 보조도구이지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제일 취약하고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인도나 남방에서 옛적의 불교를 배워 오시는데, 불교의 다양화와 변증을 위해서는 장려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 강의가 이 기획에 얼마나 부응했는지는 저도 잘 알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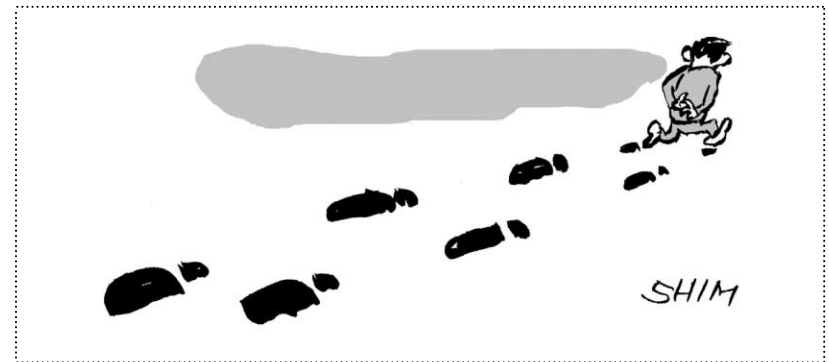
그리하여 1) 최상승의 경지보다 그것이 타파하고자 하는 장애의 현실에 대해 장황하게 논의했고, 2) <금강경>이 말하는 언어보다,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과 맥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었지요.

다시 길을 나서며

그렇지만 제 강의가 이 기획에 얼마나 부응했는지는 저도 잘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보여준 것은 제가 불교와 만난 흔적뿐이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의 별기(別記)를 마치며



보여주고자 했으며, 3)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이야기를,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적 언어의 지평 위에서 언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별기(別記)의 방식입니다. 저는 현대인들에게는 경전의 언어를 축자적으로 충실히 따라가는 소(疏)의 방식보다, 오해와 헛다짐의 위험은 크지만 과감한 해석과 체계를 제시하는 별기(別記)의 방식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

리이고 당연합니다. 1000여 매를 끌어오느라 지친 붓을 쉬기도 해야 하고, 제가 몸담은 연구원에 일도 하나 맡은 터라, 처음의

마친 것은 겨우 서론이니, 이제부터라도 본문을 쫓아가며 해설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문인데, 제 생각에는 소(疏)에 관한 한, 시중에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금강경>의 근본취지를 강(講)했다 할 수 있으니, 이제부터는 그 세부적 내용을 현대적으로 써 나가 보겠습니다.

놓았으니, 그리하여 자신의 체험으로 제 망발을 비판하고 반증할 수 있으리니, 별다른 위협에 빠지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위안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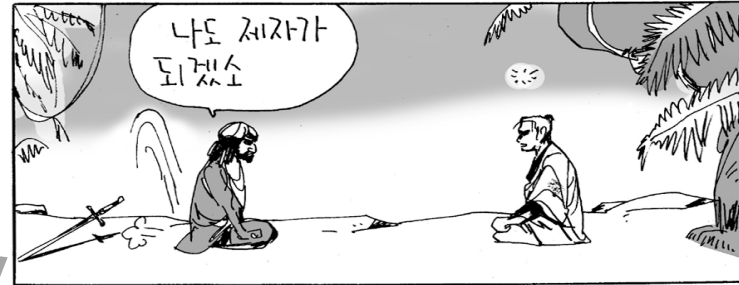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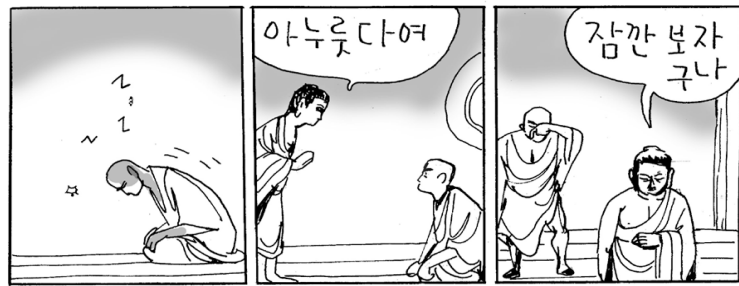
■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장사파라...

아누룻다의 '졸음'



조태호



아누룻다(阿那律, 2-7): 석가족 출신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십대 제자 중 한사람. 천안(天眼)이 열려 천안제일로 불린다.

네티즌 교리문답

무진장이란?

일상 속에서 흔히 '무진장 많다'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불교용어라고 하던 군요.

답 1: 불교문화가 우리 역사의 줄기이듯 우리 말 가운데는 불교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는 그 본뜻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거나, 본래의 뜻은 보존되어 있으나

답 2: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줄 것인가"의 명제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일상언어 속의 불교용어

답 3: <유마경> '불도품'의 무진장에 대한 해석은 훨씬 사회적입니다. "빈곤한 중생을 돕고 이롭게 함은 무진장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했으니 이 경우는 불교의 자비사상과 무진장을 동일시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과학시대와 달라서 옛날에는 재난이 많았을 것으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때로 우리 스님들과 부자들이 보여준 빈민 구제사업은 실로 무진장했던 것으로 많은 기록이 전합니다.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Crossword puzzle grid with numbers 1-11 in specific cells.

상식퍼즐

1. 비로자나불을 본존으로 모시는 당우(堂宇) 6. 사람에게 어떤 길한 일이 생길까를 미리 알려 준다는 새 7. 부엌을 맡고 있는 신 8. 한 하늘 아래서는 같이 살수 없다는 뜻 9. 아들을 낳고 한터내는 일 10. 설날 그림이나 정초에 하는 인사, 세일이 라고도 함 11. 평범한 남자를 이르는 한자성어.

정답은 26면에

세로

1. 화염경의 정식 이름 2. 병영 생활을 함께하는 동료 군인 3. 하늘이 맺어 준 배필 4. 일간신문 가운데 아침에 펴내는 신문 5. 남편과 아내.